

전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호남권 최다 선정

예비창업자 308명 최종 선발... 재도전 멘토링 통해 창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전북지역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열기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두드러진 성과로 이어졌다. 전북지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호남권 최다 선정자를 배출하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평가 결과 전북지역에서 총 308명이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선정자는 일반기술 분야 234명, 로컬 분야 74명으로 집계됐다. 일반기술 분야에서는 IT 분야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라이프스타일 분야가 48명으로 뒤를 이었다. 로컬 분야에서는 생활

분야가 40명, 식음료(F&B) 분야가 27명으로 나타났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단위 창업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약 6만3천여 명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북지역의 높은 선정 실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프로젝트 ON' 사업의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과 신청 지원 등을 제공하며 참여 기반을 확대

해 왔다.

선정자들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과 함께 초기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제공 등 아이디어 고도화와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도전자들을 위한 재도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평가 의견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보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은 오는 12일부터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전북에서는 6월 26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7월 5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각각 진행

된다. 온라인 1대1 멘토링은 6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멘토링 참여자와 아이디어 보완 제출자에게는 7월 초 예정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선정평가에서 가정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초 대·중견기업과 벤처캐피탈(VC)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 2차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국민의 창업 도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전북지역의 높은 참여율과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가 확인된 만큼 지역 창업지원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예비창업자의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배터리 소재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전북테크노파크·한국배터리산업협회, 교육생 모집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가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배터리 소재·부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배터리 소재 전문인력 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배터리 산업 성장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소재 합성, 코인

셀 제조, 소재 평가·분석 실습과 기업 현장 견학을 연계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총 12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배터리의 기본 원리와 4대 소재, 시장·정책·기술 동향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재·부품 설계 및 제조공정, 코인셀 제조, 소재 평가 및 분석 실습 등을 단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강사진에는 대기업 현장 전문가를 비롯해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해 최신 산업 동향과 현장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지역 배터리 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공정과 설비 운영, 안전관리 체계 등을 직접 체험하며 실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예비취업자 배터리 소재 전문인력 교육과정'으로 1·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과정은 오는 19일

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교육은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간 실시된다.

회차별 모집인원은 20명 이내이며 교육은 전북TP와 전북대학교 등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한국배터리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교육 대상은 배터리 관련 직무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취업자와 졸업예정자다. 교육비와 증식비는 전액 지원되며, 전북권 주요 지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출석률 80% 이상 달성 시 한국배터리아카데미 수료증이 발급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선정 기업 설명회 가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진원)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신규 지정된 돌음·도약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진원은 지난 9일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에 새롭게 선정된 돌음·도약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 선정기업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대표와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육성사업의 운영 방향을 비롯해 향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단계별 지원사업, 운영지침,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방안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은 전북특별



자치도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 기업 지원사업이다. 2010년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돌음기업 육성사업을 도입하며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올해 신규 모집에는 돌음기업 94개사, 도약기업 88개사 등 총 177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대면평가, 종합심사를 거쳐 돌음기업 17개사와 도약기업 12개사 등 총 29개 기업이 선정됐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젊은 실무자 중심 '레드팀' 출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조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젊은 실무자 중심의 '레드팀(Red Team)'을 출범시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일 전북 원주군 본사 소통홀에서 '내부통제 레드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레드팀은 기존 업무관행과 제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는 조직 내 '건설적 비판자' 역할을 맡는다. 본사 및 전국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20~30대 주임·대리·과장급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험요인과 제도적 취약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공사는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과 시각을 내부통제 활동에 반영해 조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비효율, 안전사고, 부패 위험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레드팀 임명장 수여와 함께 내부통제 전문가 초청 교육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내부통제의 개념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리스크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앞으로 레드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World FoodTech ConfEx 2026에서 월드푸드테크협의회 공로상을 받았다.

전북바이오진흥원 성과 빛났다

'World FoodTech ConfEx' 서 월드푸드테크협의회 공로상 수상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이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지역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월드푸드테크협의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World FoodTech ConfEx 2026에서 월드푸드테크협의회 공로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푸드테크 행사로, 국내외 푸드테크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투자기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식품산업의 미래 기술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대체식품, 스마트제조, 케어푸드, 업사이클링 등 푸드테크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4년 푸드테크팀 신설과 경영혁신TF 푸드테크 분과 운영을 통해 정책 대응과 신규사업 발굴, 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며 산업 발

전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2023년 출범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지원기관, 대학, 기업, 투자기관 등 55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체식품과 스마트제조 분야의 기술지원과 실증, 사업화 연계를 추진하고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및 연구사업 발굴에도 힘써왔다.

바이오진흥원은 기업 애로사항을 토대로 총 11건, 874억 원 규모의 시책 및 연구사업을 기획했으며, 이 가운데 5개 사업을 실행 단계로 연계해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사업화 기반 확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외 협력 확대에도 적극 나섰다. 포럼과 컨퍼런스,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교류와 기업간 협력을 활성화했으며, 중동과 네덜란드, 덴마크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국제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지원해 왔다. /오상근 기자

메인비즈전북연합회, '굿모닝 CEO 학습' 개최

메인비즈전북연합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퍼지컬AI 시대를 대비한 미래 전략을 공유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메인비즈전북연합회는 10일 라한호텔 전주에서 제32회 굿모닝 CEO 학습을 단독 개최하고 '생성형AI와 퍼지컬AI 시대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지역 중소기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장상만 청장을 비롯해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김병진 회장,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등



주요 기관 관계자와 회원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조찬과 내빈 소개에 이어 유태용 교수의 특별강연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성형AI와 퍼지컬AI가 산업 구조와 경영환경에 미칠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 전략과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